

지 상 법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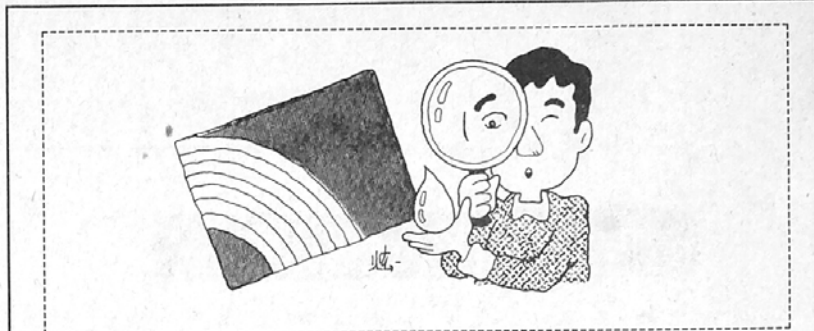
‘대도의 문’ 못들어 갑니다

을 길이 없습니다” 하니, 달마 대사가 큰소리로 이르셨습니다.
 “마음을 이미 편안케 하였느니라.”
 여기서 신공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
 니다.
 이렇게 상통(相通)이 되어 달마 대
 사는 신공을 제자로 받아들였고, ‘정
 안(正眼)의 지혜를 인정한다’ 하여 ‘해
 통(可通)’라는 법호(法號)를 내리셨습
 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로 이 해
 가 스님이 달마 대사의 법을 이어 동
 토(東土)의 전통(傳統) 제2조가 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신명(身命)을 내
 던지고 간절하게 일념(一念)으로 진리
 를 구할 것 같으면, 다 대도(大道)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참선을 해도
 안 되는 원인은 간절한 일념
 (一念)에서 구하지 않는 데 허
 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았
 으면 온갖 쓸데없는 공상, 망상에 시
 간을 다 빼앗기고 결국, 허송세월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생에 걸경코 이 일을 해결해야겠

몇 년이고 간단(間斷)없이 흐르다가
 시절인연(時節因緣)이 도래하면 화두
 가 타파됩니다. 만사를 잊은 가운데
 화두일념이 흐르는 풀과 같이 지속되
 다가 시절인연(時節因緣)이 도래하면
 화두당처(話頭當處)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겨울에 소한(小寒) 대한(大寒)이 닥
 쳐와 살갱을 에이는 한풍(寒風)이 불
 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도 훈풍(薰風)
 이 불어오면, 그 훈풍처럼 추위는 자
 취조차 없어지고 훈훈한 봄바람에 만
 물이 성장하게 됩니다.
 화두공부도 진실하게만 지어가면 이
 러한 자연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구하는 학인(學人)들이 그
 려게 진실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구를 하지 않는 고로, 1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일념(一念)이 끊어지
 지 않고 견성(見性)을 못하는 것입니
 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화두를 빼놓
 아 사무치도록 행할 것 같으면, 지겨
 운 것도 없고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
 는 가운데 절제(戒)의 달이 어느새 지나
 가게 됩니다.

는 것을 포기한 채 어느 곳에서나 바
 보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바보가 되어 버리면
 절을 절을 생각 생각이 화두뿐입니다.
 마음 가운데 화두 한 생각 뿐이면 힘
 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때는 결
 제 해체에 상관이 없고, 먹고 사는 것
 도 관여치 않으며 자기 몸뚱이까지도
 다 있어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이 흘러야 대도(大道)의
 문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필경에 대도
 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는 먼저 마음자세부터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년 중노릇을 하나, 30년
 을 하나,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 그
 장단이 그 장단입니다.
 보살님께, 처사님께도 마찬가지로입니
 다. 이 절 저 절 전국 방방곡곡을 헤맨
 다고 해서 복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
 고, 공부가 잘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오로지 마음의 광명
 을 찾는 일뿐이다.’는 절대 부동(不動)
 의 마음자세에서 모든 허세를 다 벗어
 던지고, 모든 반연을 다 끊어 버리고,

게 되면, 다겁다생(多劫多生)에 지어
 온 모든 습기(習氣)가 다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경계가 오면 스님네도 깨달
 을 수 있고, 보살님네도 깨달을 수 있
 고, 처사님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지 않음이라 깨달지 않을 수가 없
 습니다.
 부처님 법은 어디 달세계나 천상
 세계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
 니다. 개개인의 총금 속에 본
 마음자리가 다 있어서, 중생의 마음자
 리나 천불 만조사(千佛萬祖師)의 마음
 자리가 터럭 만민의 차이도 없이 똑같
 습니다. 그런데 미혹한 중생이 알지
 못하는 고로 쓰지 못하니 답답하기 짝
 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정진하여 마음자리
 를 보게 되면,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
 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되면 모든
 부처님과 역대 도인들께서 배풀어놓으
 신 검검으로 쌓인 공안(公案)에 막힘
 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식(善知識)은, 참구하는
 학인들이 ‘알았다’고 점검받으러 오
 면, 고인들의 공안법문을 들어서 시험
 해 봅니다. 이 때, 바로 깨친 이리야
 동쪽을 물으면 동을 가리키고, 서쪽을
 물으면 서를 가리키는 법입니다.
 법문을 물었을 때, 동문서답을 하는
 이는 진리의 문에 들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의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은
 동서남북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문
 답이 상통(相通)하지 않고 항상 혼돈
 이 되어 탄 소리를 합니다.
 그러한 소견(所見)은 사견(邪見)일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20
 양형진
 연기즉공

모든 존재의 나타남은
 인연에 의하여 생긴다
 다. 이를 공이라 한다.
 불타는 일체의 존재가
 인연에 의하여 생한다고
 하였다. 이를 인연생기
 (因緣生起) 혹은 줄여서
 연기(緣起)라 하며, 이는
 ‘모든 존재의 나타남
 은 인연에 의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연기설로서 가장 기본
 적인 형태는 12지연기(十二支緣起)와 같은 교
 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무명(無明)에 연하여
 행(行)이 있고 행에 연하여 식(識)이 있고...
 생(生)에 연하여 노사(老死)가 있다는 것이
 생. 그러므로 노사가 멀하면 생이 멀고...행
 이 멀하면 무명이 멀하다는 가르침이다.
 이러한 연기설은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생하므로 이것이 생한다. 저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고, 저것이 멀하므로 이것
 이 멀한다’라는 생기와 지멸의 인과관계에 관
 한 가르침이다.
 또한 연기는 ‘바뀌려는 부분이 연하여 수레
 가 있다’라는 것에서 처럼 바뀌려는 부분들이
 상호 의존하여 수레라는 명칭이 생겨난다는
 소위 상의성(相依性)의 대승철학적 의미를 갖
 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불타의 가르침은 일체 존재는 그 스스로
 생겨나지 않으며 무아무실체(無我無實體)적

그러나 무지개가 이것만
 으로 완성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의 시각감
 지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만
 을 우리 눈은 느낄 수 있
 으므로 일곱 가지 빛의
 무지개가 비로소 나타남
 다는 것을 지난 번에 논
 의하였었다. 이렇게 무지
 개가 공중에 떠있는 물방
 울과 태양 광선, 그리고
 광선이 지나는 경로에 대한 물리법칙 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공중
 에 떠있는 물방울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이 물방
 울에서 무지개의 본성을 발견할 수는 없게된
 다.
 즉 이 물방울은 무지개의 성분 혹은 무지개
 의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방울에는 무
 지개의 본성이 없으며, 무지개라는 현상은 어
 러 가지 제 요소가 무지개가 나타날 수 있게
 끔 조성됨으로써, 즉 인연이 성립됨으로써 비
 로소 나타내게 되어 이 때 무지개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즉각의 예를 들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일례
 로 우리가 매끄럽다고 느끼는 어떤 물질의 표
 면은 매끄럽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원자 배열을 본다면 그
 것은 철학산의 바위 능선보다도 더 요철이 심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 요소가

“간절한 一念으로 진리 구하여
 마음속 습기와 미혹 다 녹으면
 오직 부처님 법만 뚜렷해 집니다”

다’는 각오로 간절하게 일념으로 화두
 를 참구할 것 같으면, 시간이 흘러도
 흐르는 줄을 모르고, 옆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 소리를 듣지 못
 하며,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것까지
 있어 버리게 됩니다. 오직 화두 한 생
 각뿐입니다.
 그 한 생각, 화두일념(話頭一念)이
 흐르는 풀과 같이 지속될 것 같으면
 천사님 만사님이 다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기 위
 해서는 먼저, 마음 자세부터 확고히
 정립해야 합니다.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모든 반연
 (攀緣)을 다 끊어 버리고, 몸뚱이에 병
 이 없고, 잘 먹고 못 먹고 하는,
 그러한 소소한 관심도 다 버리고 생애
 의 모든 생각을 오로지 화두에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생각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고 붙들어야 붙들 것이,
 없습니다. 모든 잡념은 다 끊어져 버리
 고, 바늘로 삼을 찌르면 온 신경이 거기
 에 집중되듯이 화두가 아주 강도 있게
 집중되고,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
 등신 같다’, ‘혼이 나간 사람 같다’고
 할 정도로 화두에 푹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이 며칠이고 몇 달이고

그런데 내가 여러 곳에서 선방 수좌
 (首座)들을 데리고 살다보면, 어떤 이
 들은 석 달이 지겨워서 발판을 합니다.
 그것은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
 아닙니다. 앉아서 화두를 참구 한다고
 해보아야 절제(戒)가 흥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한 발심수행(發心修行)으
 로는 백발이 되도록 해도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은(施恩)만
 잔뜩 지고는 죽음을 다다라서 한탄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대중은, 진짜 발심(發
 心)을 해서 견성(見性)하기 위한 중노
 릇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하
 루하루 발판 속내는 중노릇을 하고 있
 는가, 스스로 마음자세를 점검해 보고
 발심(發心) 또 발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다 저버리고 집집
 에 와서 중노릇을 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남을 위해
 서 하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자기 자
 신을 위해서 택한 것입니다.
 참구하는 법을 바로 바워서 일
 상생활 가운데 꾸준히 익혀가야 합니
 다.
 어쨌든 가정을 가졌으니 아들 딸 및
 바라지는 해야 할 것이고 가정을 거꾸
 여야 하니, 그러한 세간살이 가운데서
 화두를 놓치는 바 없이 간절하게
 참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음 가운
 데 모든 습기(習氣)와 허잡이 소멸되
 어 갈 것입니다.
 ‘가고 오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몸뚱이를 지배하는 참 주인공이 있
 어서, 일상의 생활 가운데 가고 오고
 말하고 부르면 대답하고 오늘 이 자리
 에서 이렇게 법문(法門)을 듣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거
 두어 얻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참으로
 분하고 어리석은 노릇이 아닙니까?
 이것을 알아야겠다는 ‘간절한 일념
 (一念)에서, 빼놓아 사무치고 오장육부를
 찌르는, 그러한 의심을 짓고 화두를 행
 할 것 같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
 부가 무르익어갑니다. 모든 잡념은 물
 러가고 화두 한생각만 뚜렷이 드러나
 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 오나 밥을 지으니 청소를 하나
 직장일을 하나 잠을 자나, 일체처(一
 切處) 일체처(一切處)에 ‘이 것이 무
 엇인고’ 하는 화두 한 생각만 뚜렷해

“見性위해 정진하면
 어느 곳에서나
 스님도 보살도 처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뿐, 이 대도(大道)의 길에는 아무런
 함이 안됩니다. 사견에 떨어져 버리면
 금생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나고 날
 적마다 사건의 굴레에서 헤어나기 어
 려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구하는 학인은 항
 시 먼저 깨달은 선지식을 의지해서 탁
 미(琢磨)받고 지도받아 바른 지견(知
 見)을 정립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
 된 사견(邪見)이 있어서 선지식이 아
 니라고 한다면, 즉시 놓을 줄 아는 큰
 그릇이어야 대도(大道)에 가까운 인연
 (因緣)이 되는 법입니다. 혹여 이 대도
 (大道)를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
 의 마음자세에 허잡이 없는지 한 번 점
 검해 보고, 밤새 빼놓아 사무치게 화두
 를 참구해 보기 바랍니다.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인연공덕을 쌓는 성품
佛子님들에게 표구비만으로 드리겠습니다.
 석가세존일대기(팔상록), 금강경원력 병풍

살아있는 병풍-팔상록, 금강경

- 직품해설
 장엄하신 석가세존부처님 일대기를 金蓋로 전면에 조성
 하고 후면에 경전의 으뜸인 금강경을 金蓋로 사경하여 원
 력을 담았습니다.
- 진면:팔상록 • 후면:금강경
 1. 도솔래의상-석가세존의 태중에 드시다.
 2. 비림김생상-몸비니 꽃동산 탄생하시다.
 3. 시문유관상-생노병사의 허무를 관찰하시다.
 4. 유성출가상-한밤에 책을 넘어 머리를 깎고 사문이 되시다.
 5. 성신수도상-실산의 6년 고행 최후구경의 정각을 이루시다.
 6. 수허침미상-미왕파문의 도전을 받고 권복을 받으시다.
 7. 녹월전법상-5비구의 귀의와 녹아인 설법하시다.
 8. 쌍림월반상-월면에 드시다.

포기년품중점
 부처님의 성품
 을 통하여 대중
 포교를 펴고자
 본성품을 신장하
 시는 분께 백자
 반야달마 도자기
 를 선물로 드립니다.

재가불자 성
 도 거사가님
 이
 직접 그린
 금화입니다.
 • 족자규격:
 1520×520
 (%)
 • 포교가격:
 ₩198,000원

한국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三田佛事포교원
 ■ 문의처 : 732-6096, 735-5293
 (클로버서비스)전화 080-022-1100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클로버서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특별포교가격: ₩390,000(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정기분할가격 ₩428,000 인수시 44,000, 매월 48,000×8회